



## Risk off는 선택, 배당부(附)는 필수

## 1. 12월 기말 배당

- 12월 배당 수취를 위해서는 12/27(화)까지 주식 매수 필요.
- PF 익스포저와 자금경색 리스크로 하반기 조정이 극심했던 종목은 배당재원 감소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최근 반등 후에도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
- 유동성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종목의 배당수익률도 낮지 않은 편.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성이 낮은 종목의 배당수익률도 낮지는 않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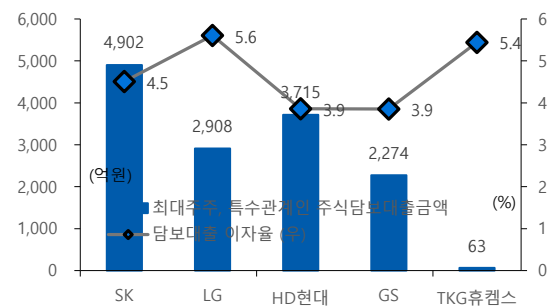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2.4Q (E)	
A004800	효성	6,250	8.4
A001430	세아베스틸자주	1,500	7.9
A001120	LX 인터내셔널	2,825	7.1
A069260	TKG 휴켄스	1,400	6.6
A078930	GS	2,725	6.0
A000270	기아	3,500	5.6
A030200	KT	2,000	5.6
A267250	HD 현대	3,400	5.3
A053210	스카이라이프	450	5.2
A010950	S-Oil	4,500	5.2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배당주 스크린의 3가지 아이디어

- 배당성장주는 배당주 접근에 가장 유효한 팩터. 배당락 후 수익률 하회 리스크 경감과 주요 배당 자금의 편입비중 상승에도 반영될 것.
- 배당 가능 이익 관점도 고려 필요. 실적 Peak out을 확인하고 조정 중이지만 현금이 축적된 종목도 다수.
- 주식담보대출이 큰 종목은 이자율 부담 증가 국면에서 배당성향을 제고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유인이 높은 점도 주목 필요.

주식담보 대출금액이 큰 종목은 이자율 부담 증가에서 배당성향을 제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유인이 높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1. 12월 기말 배당

12월 결산법인의 기말배당, 이외 법인의 분기배당 수취를 위해서는 12/27(화)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공시한 종목은 70개(우선주 4개 포함)로 확인된다.

기대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는 PF 익스포저와 자금경색 리스크로 하반기 조정이 극심했던 종목들이 눈에 띈다. 구조조정, 계열사 지원 등 배당재원의 감소 측면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최근 반등에도 높은 배당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다.

[표 1] 4Q 기말배당 예상 - PF, 자금경색 리스크에 노출된 종목이 상위에 랭크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0.4Q	21.4Q	22.4Q (E)	
A138930	BNK 금융지주	320	560	640	8.8
A002990	금호건설	500	800	650	8.4
A139130	DGB 금융지주	390	630	630	8.0
A024110	기업은행	471	780	850	7.7
A029780	삼성카드	1,800	2,300	2,450	7.6
A316140	우리금융지주	360	750	970	7.5
A175330	JB 금융지주	374	599	590	7.0
A003690	코리안리	385	449	450	6.3
A016360	삼성증권	2,200	3,800	2,100	6.1
A000810	삼성화재	8,800	12,000	13,000	6.0

유동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종목의 배당수익률도 낮지 않다. 세아베스틸지주, 기아, KT, 효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종목도 주가부진에 기인해 배당수익률이 상승했지만, 개별 모멘텀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군으로 사료된다.

[표2]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성이 낮은 종목의 배당수익률도 낮지는 않은 편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0.4Q	21.4Q	22.4Q (E)	
A004800	효성	5,000	6,500	6,250	8.4
A001430	세아베스틸지주	200	1,500	1,500	7.9
A001120	LX 인터내셔널	400	2,300	2,825	7.1
A069260	TKG 휴켄스	1,000	1,000	1,400	6.6
A078930	GS	1,900	2,000	2,725	6.0
A000270	기아	1,000	3,000	3,500	5.6
A030200	KT	1,350	1,910	2,000	5.6
A267250	HD 현대	3,700	3,700	3,400	5.3
A053210	스카이라이프	350	350	450	5.2
A010950	S-Oil	-	2,800	4,500	5.2

## 2. 배당주 스크린의 3가지 아이디어

연말 배당주 접근에 유효한 팩터는 배당성장으로 생각된다. 배당락이 전년 대비 배당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부 포지션의 배당락 후 수익률 하회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 주요 배당자금의 BM 비중에 고려되는 팩터인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별 스크린 기준마다 중복되는 종목이 존재하지만, 동 기준에서만 스크린되는 종목은 우리금융지주, 한세실업,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다.

**[표3] 배당성장주는 배당락 수익률 하회 리스크, 주요 배당자금의 편입비중 상승 측면에서 유효한 종목군**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0.4Q	21.4Q	22.4Q (E)	
A011200	HMM	-	600	1,016	4.7
A010950	S-Oil	-	2,800	4,500	5.2
A069260	TKG 휴캠프	1,000	1,000	1,400	6.6
A078930	GS	1,900	2,000	2,725	6.0
A105630	한세실업	500	500	650	4.2
A316140	우리금융지주	360	750	970	7.5
A053210	스카이라이프	350	350	450	5.2
A047050	포스코인터내셔널	700	800	986	4.2
A034730	SK	6,000	6,500	8,000	4.0
A001120	LX 인터내셔널	400	2,300	2,825	7.1

배당 가능 이익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배당은 결국 잉여 현금성 자산에서 재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Free Cash Flow 증가 종목이 관련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4Q의 낮은 전망치 달성률, 주요 이익 컨센서스 계정 대비 신뢰도가 높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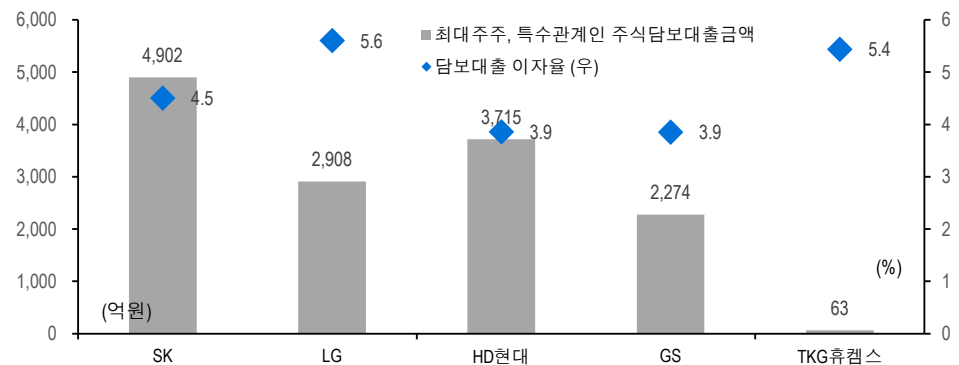
최근 결산년도 대비 FY22 Free Cash Flow 수준이 높은 고배당주는 이익의 Peak out을 확인하고 조정 중인 종목들이다. 이들 종목의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지만, 올해 실적을 경신하면서 축적한 현금여유는 남아 있다. LX인터내셔널, GS, 스카이라이프, S-Oil, HMM 등이 대표적이다.

**[표4] Peak out 확인 후 조정 종목은 잉여 현금성 자산의 축적으로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기대 가능**

Code	종목	DPS		Free Cash Flow				배당 수익률
		21.4Q	22.4Q(E)	FY20	FY21	FY22(E)	FY21-22 y-y	
A001120	LX 인터내셔널	2,300	2,825	2,106	1,038	5,470	427.0	7.1
A078930	GS	2,000	2,725	11,397	2,455	15,956	549.9	6.0
A053210	스카이라이프	350	450	1,171	566	1,213	114.4	5.2
A010950	S-Oil	2,800	4,500	10,839	12,052	14,093	16.9	5.2
A011200	HMM	600	1,016	-4,212	57,961	101,960	75.9	4.7
A003550	LG	2,800	3,057	6,831	9,614	13,404	39.4	3.9

최근 당사 지주 섹터에서 시사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상속세 재원 부담 증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 배당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주식담보대출금액 규모가 큰 종목은 이자율 부담 증가 국면에서 배당성향을 제고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유인이 높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준에서는 SK, LG, HD현대, GS, 휴켄스 등이 스크린된다.

**[차트1] 주식담보 대출금액이 큰 종목은 이자율 부담 증가 국면에서 배당성향을 제고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유인이 높은 점에 주목.**



주: 이자율은 대출금액 가중 기준. GS는 국내 금액만 반영.